

김은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[eunji@kiep.go.kr]

주요 내용

최근 일본정부는 전략적인 ODA를 추진하기 위해 사령탑 기능을 가진 “해외경제협력회의”를 창설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ODA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기관을 국제협력기구(JICA)로 통합하는 개혁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.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하여 ODA 조정역할의 강화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, 기존 ODA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, 나아가 ODA 정책의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이에 일본정부는 5월 8일 “해외경제협력회의”를 처음으로 개최하고, 국별·지역별 전략의 우선 순위와 중점 ODA 전략 분야 등 효과적인 ODA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, 향후 일본정부의 ODA 전략의 추진 변화가 주목된다.

1. 배경

- 일본정부는 작년 11월 29일 정부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「정책금융개혁의 기본방침」을 결정한 바 있음.
 - 동 기본방침에서는 ‘정책금융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종료되었다’고 강조하면서, “해외경제협력, 영세·중소기업, 인프라, 농림어업, 오키나와진흥” 등 5가지 정책 분야만을 신설 정책금융기관으로 통합한다고 결정함.
 - 국제협력은행(JBIC)은 국제금융업무와 엔차관 등의 해외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해 왔으

나, 이 중 엔차관 업무를 국제협력기구(JICA)로 통합하고, 국제금융업무를 신설 정책 금융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.

- 또한, 일본정부는 “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(이하, 검토회)”를 관방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여,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ODA의 전략적 활용, 원조기관의 체제, 원조정책의 기획입안 등 구체적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음.

2. ODA 개혁의 추진 현황

- 검토회는 2006년 2월 28일 총리와 소수 각료 중심의 “해외경제협력회의”를 내각에 설치하고, ODA 시행기관을 재편하여 JICA로 일원화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음¹⁾.

가.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“해외경제협력회의” 창설

-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해외경제협력의 중요사항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, 총리 및 소수의 각료로 구성되는 ‘해외경제협력회의’를 내각에 창설하기로 결정함.
 - 동 회의에는 총리, 관방장관, 외무장관, 재무장관 및 경제산업장관이 주요 멤버로 참여하고, 특정분야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시행기관장과 기타 각료가 참석하기로 함.
 - 사령탑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교와 내정을 담당하는 2명의 내각관방 부장관보와 관련성청에서 파견된 10명을 배치하는 사무국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함.
 - 향후 동 회의는 해외경제협력과 관련된 다음의 중요사항에 대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기본전략 및 방향성 등을 결정할 예정임.
 - ODA 전략의 기틀 (ODA 대강, 중장기정책, 국별·분야별 원조계획,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본이 추진하는 ODA 관련 이니셔티브 등)
 - 주요 개도국에 대한 해외경제협력 방식(중점전략분야와의 관계, 국별·지역별 전략의 우선순위, 원조방법, OOF와의 연계, 민간자금의 활용 등)
 - 특정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경제협력의 방식
 - ODA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²⁾평가, NGO 등 국민참가, 현지 ODA 태스크포스 운영 등)

- ODA 사업과 관련하여 안건발굴, 공여결정, 사후관리까지 동 회의는 정치주도하에 관계성청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ODA 조정의 중핵 역할을 담당할 것임.

나. ODA 실시기관을 JICA로 일원화

- 또한 지금까지 엔차관(JBIC), 기술협력사업(JICA와 13개 성청), 무상원조(외무성)로 구분되던 ODA 지원방식과 관련하여, 일본정부는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ODA 실시기관을 JICA로 통합·일원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함.
 - JBIC의 엔차관 업무를 JICA로 통합하고 현재의 각 성청간의 협의·연대체제를 유지하여, 채무상환확실성 및 채무건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.
 - JBIC의 국제금융부문은 신설 정책금융기관으로 통합하지만, JBIC의 해외 인지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의 국제부문은 일정한 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함.
 - 또한, 새로운 JICA하에서의 엔차관 부문과 국제금융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연락협의회 설치 등을 고려함.
 - 현재 기술협력사업의 60% 이상을 JICA가 실시하고, 나머지 약 40%를 13개 성청이 실시하고 있음. 따라서 전략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무성 등 관련 성청이 상호간에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임.
 - 무상원조사업 중 JICA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JICA가 시행하되, 외교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문 또는 위험지역으로의 공여 등 JICA로 위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외무성이 실시를 담당함.

3. 평가 및 전망

- 기존의 ODA 정책은 각 성청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, 이로 인한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음. 하지만, 금번 개혁을 통하여 ODA 조정역할의 강화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도모됨에 따라, ODA 정책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.

- 또한, 동 회의의 발족으로 ODA의 조정 기능은 외무성의 경제협력국에서 내각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됨.
 - 일본정부는 ODA의 공여를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 등 일본의 국익에 중요한 분야에 집중시킬 예정이어서, 향후 “외교 수단”의 일환으로써 ODA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임.
- 한편, 일본 언론에서는 금번 ODA 개혁에서도 관련성청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.
- ODA 시행기관을 JICA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으나, 재무성, 외무성, 경제산업성 등이 관여하는 기존의 협의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, 명목상의 일원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.
- 일본정부가 ODA 운영체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면서 관련성청간의 협조 및 조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정부가 동일하게 당면한 문제로써 향후 일본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음.

1) 수상관저 홈페이지(<http://www.kantei.go.jp>). 「海外經濟協力に關する檢討會 報告書」(2006. 2. 28)